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연준이 내년 언제 금리 인상을 둔화시킬까?
- WSJ: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1월 15일 은퇴

[미국 금융]

- Cnet: 미 모기지 채용자율 상승
- Bloomberg 칼럼: "미 국채 실적 보면 연준 판단이 틀리지 않다"

[COVID 19]

- CNBC: 미 전문가, "중국 신종 변이 위험성 낮다"

[인플레이 감축법(IRA)]

- WSJ: 미국, EV 보조금 정책 관련 우방국에 우호적 움직임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중앙은행, 국내 수요 진작 지원책 약속해

[오일]

- WSJ: 세계 에너지 흐름 점점 바뀐다...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탓

[미 IT 트렌드]

- WSJ: 2023년도에 일상을 바꿀 테크 트렌드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내년 美 고용시장에 대한 5가지 전망
- 한경: 韓 '리스·렌트용 전기차'도 美 보조금 받는다...현대차 '숨통'
- 연합뉴스: 美 IRA로 새해부터 전기트럭 보조금 최대 5천만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임금 불평등 역전 현상...앞으로도 계속되나?
- WSJ: 미 근로자들, 이미 주별 최저 임금보다 많이 받는다
- Bloomberg: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5가지 혜택은?
- Bloomberg: 내년에 업무 생산성을 기대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Fed watch 2023: When will rate hikes slow down

연준이 내년 언제 금리 인상을 둔화시킬까?

-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하지만 인상폭은 둔화될 것이다. 현재 수그러지는 인플레이 하락폭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 건가에 달려있다.

- 연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지속되는 임금 상승 수준. 그래서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 파월은 이달에 “인력 부족은 조기 은퇴, 코비드 발병과 사망, 이민 유입 감소 등 때문이다”라며 이리다 보니 고용주는 해고가 망설여지고, 해고되어도 빨리 일자리는 잡는다.
- 12월 현재 연준은 금리를 5%-5.25%까지 올리는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9월 4.5%-4.75% 예상보다 높다는 것. 즉, 9월 예상보다도 금리를 향후에 0.5% 더 올린다는 것이다.
- 연준에 따르면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은 적어도 2025년까지 2% 목표제를 훨씬 상회하리라는 것. 그리고 연준은 경기둔화로 실업률이 현재의 3.7%에서 내년말에 4.6%로 상승, 2024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같은 수치 판단에 따라 침체나 대량 해고가 없으면서 인플레이를 막은 ‘소프트랜딩’ 가능성은 좁아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완만한, 또는 가벼운 불황 가능성이다.
- 내년엔 총 8번의 FOMC가 열린다. 아래 개최 날짜 바로 앞의 * 표시가 있는 회의 때는(3, 6.9, 12월) 향후 금리를 예상하는 ‘점도표’ 차트가 정해진다.

January 31-February 1

* March 21-22

May 2-3

* June 13-14

July 25-26

* September 19-20

October 31-November 1

*December 12-13

CNN Business 기사

WSJ: Retiring Fed President Challenged the Consensus Inside Central Bank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1월 15일 은퇴

- Esther Georg 총재는 지난 2011년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되어 11년간 연준 정책에 관여할 때 16개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대했다.
- 컨센서스를 강조하는 연준에서, 매파적 입장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뉴욕연방은행 총재를 역임한 William Dudley 따르면 “그녀는 분별력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 하기 쉬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합리적인 의견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WSJ 기사

[미국 금융]**Cnet: Mortgage Refinance Rates for Dec. 30, 2022: Rates Tick Higher**
미 모기지 재융자율 상승

- 15년 고정 및 30년 고정 재융자 모두 평균 금리가 상승했다. 10년 고정 재융자의 평균 금리도 상승했다.
- 30년 고정 재융자 평균 금리는 현재 6.68%로 전주보다 8bp 상승했다. 1bp는 0.01%다.
- 15년 고정 재융자 평균 금리는 전주보다 13bp 오른 6.16%. 10년 해당 평균 금리는 17 bp 오른 6.30%다.
- 연준이 시행중인 고금리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재융자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현재 이자율보다 낮을 때 주택을 구입했다면 모기지 재융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얻기 힘들다.

Cnet 기사

Bloomberg: US Bond Performance Shows Fed Isn't Behind the Curve
칼럼, "미 국채 실적 보면 연준 판단이 틀리지 않다" by Matthew A. Winkler

- 올해 3월에 많은 이들은 '연준이 커브 뒤에 있다'는 말로 연준이 인플레이 억제 정책이 효과가 작고, 뒤늦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속하게 여러차례의 0.75% 금리 인상책을 시행했다.
-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4.50%로 7차례 연속 올리면서 모든 유형의 부채는 올해 13% 폭등했다. 그러나 미국 채권을 올해 G7이 발행한 채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채권 자산(fixed-income assets) 벤티마켓 보다 성과가 좋았다.
- 팬데믹 기간중 미국만큼 반등하거나 회복한 주요 국가는 없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지출하고 있다. 올해 7월, 8월, 9월 그리고 현재 10월 지출은 1.2% 증가했으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OVID 19]

CNBC: Risk of a dangerous new Covid variant in China is 'quite low,' U.S. health expert says

미 전문가, "중국 신종 변이 위험성 낮다"

- 워싱턴 대학 보건 연구 센터장 Chris Murray가 중국에서 위험한 신종 코로나 변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건의 오미크론 감염이 있었지만 새로운 코로나 변종이 등장하지 않았고,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만 등장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은 초기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 한편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코로나 감염과 사망에 관한 일일 정보 공개를 중단하고 검사 의무를 폐지했다. 미국,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은 중국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코로나 검사 요구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CNBC 기사

[인플레 감축법(IRA)]

WSJ: U.S. Moves to Appease Allies on EV Subsidies

미국, EV 보조금 정책 관련 우방국에 우호적 움직임

- 인플레 감축법(IRA) 시행을 놓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가 EV 전기차에 미국산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같은 일부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였다.
- 연방 재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 조립도 혜택을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해외 조립 전기차가 재판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리스나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상업용 EV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s Central Bank Pledges Support for Domestic Demand

중국중앙은행, 국내 수요 진작 지원책 약속해

- 중국 중앙은행은 경제가 코비드 제한에서 재개되면서 내수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신용 성장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총재 Yi Gang 주재로 분기별 통화정책 위원회 모임을 가진후에 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통화정책은 성장, 고용, 물가 안정과 내수 확대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 즉, 실물 경제를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물가 안정도 꾀하고, 팬데믹 타격 입은 주요 사업을 목표대로 부양책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산 업계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고, 부당산 부분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Russia's Oil Ban Accelerates Shift in Global Energy Flows

세계 에너지 흐름 점점 바뀐다...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탓

-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확보에 안간힘을 쓰면서 오랜 에너지 교역 관계가 무너지고 지정학적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로 발길을 돌리면서 중국, 인도 등이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11월 말부터 주력 원유를 상한선인 60달러보다 무려 17달러 낮은 가격에 판매, 하루 190만 배럴을 중국에 수출해 전년 대비 수출량이 16.5% 증가했다.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중동 에너지 수출국들은 유럽 국가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팔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3분기 EU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평균 5.1%에서 올해 9.1%로 빠르게 성장했고, 11월 수출량이 하루 1백만 배럴에 달했다.

WSJ 기사

[미 IT 트렌드]

WSJ: Tech That Will Change Your Life in 2023

2023년도에 일상을 바꿀 테크 트렌드

1.메타버스 그 이상의 세상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해라고 불렸던 지난 2년이었는데, 2023년에는 VR과 AR을 선택할 수 있는 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VR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메타 뿐만 아니라 HTC, 애플 등에서 새로운 기기들이 출시될 예정.

2.허리 졸라매는 빅테크

2008년 이후 가장 힘든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고통이 2023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PC와 반도체 칩 산업이 20년만에 가장 큰 매출 감소로 타격을 입으며 해고와 고용이 동결된다. 최신 노트북과 같은 기기들이 할인에 들어가며, 구독 서비스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스트리밍 구독 정책 변화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가 2023년 초로 다가오고 있다. 하나의 계정은 동거 가족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광고 포함 구독료 6.99달러보다 약

간 낮은 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중국으로부터 탈피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탈피하면서 애플 등의 기업들이 중국 밖으로 제조 공장을 옮기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이용 금지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5.인공지능의 더 나은 용도

2023년 AI는 매우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확하고 편향되기 쉬웠던 주요 단점을 벗어나 데이터 세트를 확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가 이미 사용 중인 기술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Dall-E 2 와 Bing 접목, 메타의 Make-A-Video, 구글의 새 AI 챗봇 등이 연구 중이다.

6.건강한 청력

내년에는 더 많은 종류의 시판 보청기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난청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모바일 페어링 등의 신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에어팟과 같은 기기들이 체온, 자세, 심박수 등을 추적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돕게 될 것이다.

7.암호화폐의 변화

가장 신뢰받는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붕괴 등 암호화폐에 관한 나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 한 해였다. 하지만 이것이 암호화폐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합법적인 사용은 줄어들겠지만,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내 또 다른 표적을 찾고 있다.

8.더 쉬워지는 스마트 홈

스마트 홈을 꾸리기 위해서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300개의 치열한 테크 경쟁사들이 'Matter' 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집안 모든 종류의 장치들이 서로 인식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앱과 장치들이 준비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예정.

9.소셜 미디어의 격상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소셜 미디어의 풍경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콘텐츠 장벽을 없앴다. 트위터는 1년 후에 세계의 광장이 될 수도, 또는 규제 당국 벌금 때문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10.아이폰 변화시키는 EU

EU의 법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바꾸게 될 것이다. USB-C충전 포트가 도입되고, 애플 앱스토어 외부에서의 앱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것이다.

WSJ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내년 美 고용시장에 대한 5가지 전망
- **한경:** 韓 '리스·렌트용 전기차'도 美 보조금 받는다...현대차 '숨통'
- **연합:** 美 IRA로 새해부터 전기트럭 보조금 최대 5천만원
- **한경:** 美 11월 펜딩주택판매 73.9, 전월비 4%↓...2001년 지수 발표 이후 가장 낮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age Inequality May Be Starting to Reverse**임금 불평등 역전 현상...앞으로도 계속되나?**

- 2022년 인플레이션, 원격 근무, 탈세계화 등은 숙련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해 팬데믹 이후 2년간 급격히 추세가 역전되었다.
- 연준의 노력으로 얼마 남지 않은 노동시장 강세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 고용주들이 학위 요건을 낮추고, 근로자들은 원격 근무를 선호하며 임금 격차가 줄었다. 탈세계화와 이민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가 줄었고, 인공지능이 숙련직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WSJ: Large Pay Gains Outpace State Minimum-Wage Boosts for Many Workers**미 근로자들, 이미 최저 임금보다 많이 받는다**

- 미국 주의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지만,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강한 노동 수요에 의해 이미 그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어 최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팬데믹 이후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올랐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각 주의 소득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에서 주 최저임금보다 평균 3분의 1 높았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한편 노동부는 전국적으로 2022년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7.1% 올랐는데, 같은 기간 인플레 조정 후 개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9% 감소했다.

WSJ 기사

Bloomberg: Here are the Five Benefits US Employees Want Most**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5가지 혜택은?****1. 원격근무**

고용주는 '사무실로 어서 돌아오오!' 외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 근무는 참여도를 높이고, 인력 소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

2. 유연성

유연성 여부가 직원들이 직장을 유지하거나 그만두는 큰 이유중 하나라는 것. 아이들 출근시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늦은 아침에 출근하고, 대신 늦게 근무하는 형태다.

3. 지속 가능한 업무

기업들이 사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휴식을 구축할 수 있다. 예컨대, 휴가 시간을 늘리거나 기술 과부하를 줄이거나 심지어 낮잠 시간 제공 등이다.

4. 재정적인 건전성

급여가 상승하는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 있다. 직원을 위해 늘어나는 혜택중 하나는 학비 지원. 관련 채용공고가 작년엔 전체 공고의 7%에서 올해 8%로 늘어났다.

5. 일자리 안정성

스타트업과 기술 회사들이 불안해지고 긴축 시대가 접어들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어려운 경제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거둔 회사들은 아직 수익이 부족한 스타트업 회사보다 인재 유치에 더 유리하게 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ack to the Future of Work: Three Predictions for Productivity in 2023

내년에 업무 생산성을 기대한다

- 분명한 점은, 이제 사무실 생활은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 4명중 3명은 하이브리드 근무는 자신들이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전세계 10억명 이상이 이미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작업 방식을 지원하는 법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는 상사와 직원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의 일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 그렇다고 하이브리드 작업이 '소풍'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이브리드 인력의 25%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59%는 어디서 일하든간에 자산의 건강과 웰빙에 신경을 쓸 것이라 말한다. 한다미로 하이브리드 사무실의 생산성과 사회적인 응집력(social cohesion)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요한 점은, 누군가가 일하는 곳이 어디이건 간에 그곳이 그들에게 맞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을 사회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회의도 하고 스낵도 먹고 따뜻한 음료도 마시고 대면 접촉도 하는 소셜 허브로.
-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사무실 공간 감소의 84%가 하이브리드 근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좀더 사교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부동산 회사 CBRE에 따르면 리더의 36%가 회사내 커뮤니티 구성과 사무실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직장 경험과 이벤트를 만들고 있다.
-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일하고 서로 만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그렇게 새롭게 개선된 사무실로 회복되길 기대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올해는 '강달러'의 해..."美달러화 가치 9% 올라"****내년 달러강세 진정 전망 다수...추가상승 예상도**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6개 주요 통화 대비 약 9% 상승했지만, 연말로 오면서 고점 기준 상승분의 약 절반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강달러가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1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WSJ 달러지수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올해 8.9% 상승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고점을 찍은 지난 9월 27일에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